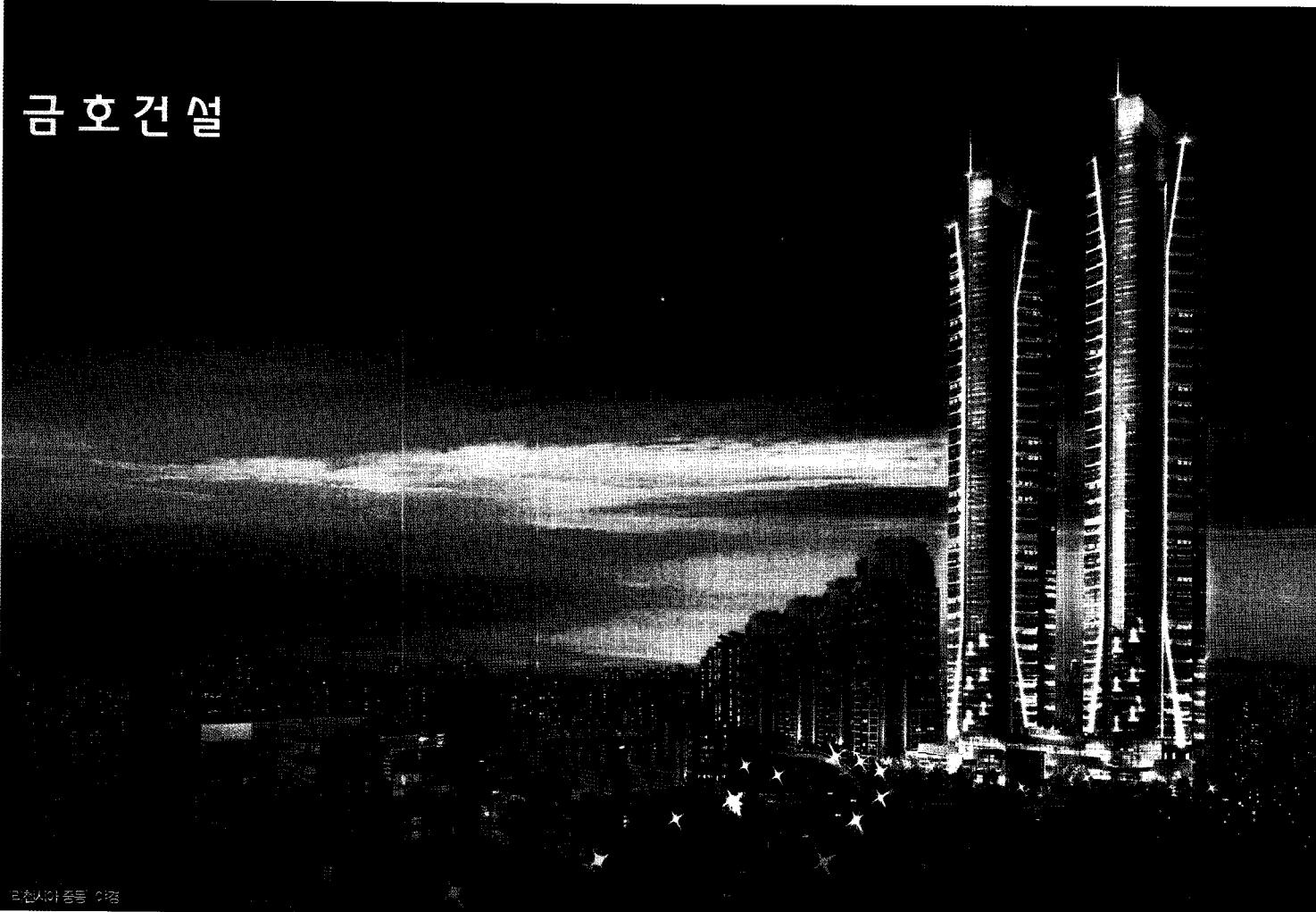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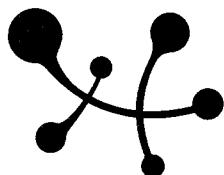
## 금호건설



호진시아 증동 아경

'It's beautiful' 금호건설

# 주택 건축 시장의 트렌드 리더로 '우뚝'



## 어울림

토지와 건축 자재를 다루며 건축 공사를 하는 건설 회사가 예뻐졌다. 집과 건물에 색과 디자인을 입히고 앞선 트렌드를 추구하며 색다른 건축물을 탄생시킨다. 바로 40년간 주택·토목·건축 등 건설 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시공력을 갖춘 금호건설이다. 변화하는 주택 시장을 리드하는 금호건설의 비전과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았다. 에디터 김소진 사진·자료 제공 금호건설

금호건설은 1967년 창사이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택·토목·건축·플랜트·환경 등 건설 전 분야에서 우수한 시공력과 풍부한 경험을 확보해왔다. 국내 굴지의 건설 업체인 금호건설이 매출 및 수주에서 연이은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트렌드를 제시해 건설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금호건설의 중장기 비전,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기업'

금호건설이 지난해 '건설은 패션이다'라는 슬로건이 담긴 파격적인 기업 PR 광고를 선보였다. 얼핏 보면 건설 회사 광고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빠른 전개와 반전이 담긴 영상이다. 이렇듯 금호건설이 신선하고 파격적인 광고를 내세운 덕에 금호건설 기업 PR 광고는 고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하지만 금호건설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업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기업 PR 광고 론칭의 배경을 쉽사리 짐



도심 속 문화 공간 'kring' 외관

작할 수 있다. 금호건설이 비전으로 내세운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기업'은 경영 방침과 핵심 가치를 통해 실현해낼 수 있다. 경영 방침에는 '열린 경영'과 '열린 문화'가 담겨 있고, 핵심 가치는 '원칙과 기본', '열정과 창의'로 이뤄진다. 이는 임직원의 창의를 적극 수용해 참여를 극대화하고 내외부 환경에 진화하는 기업 문화를 가지며, 외부 고객과 다각화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창출해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확연히 비춰진다. '고객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기업'을 비전으로 내세워온 금호건설은 '어울림'과 '리첸시아' 등 주택 및 주상복합 브랜드를 통해 고객들과 교감해왔다.

#### 트랜드 리더들이 찾는 도심 속 복합 문화 공간 'kring'

서울 강남의 대치동 사거리 를 지나 휴문고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역동적인 원 모양의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는 독특한 건축물이 눈에 띈다. 커다란 동그라미들이 저마다 다른 크기로 건물 정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건물은 금호건설(대표이사 이연구 사장)의 문화와 예술, 감성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 'kring(이하 크링)'이다.

이 건물의 명칭인 '크링'은 네덜란드어로 원(Circle)을 의미한다. 건물 외관의 주 컨셉트이기도 한 원은 의사소통의 자유를 의미하며, 문화·예술·감

성 모두를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순수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건물 안과 밖 어디에도 회사명을 찾아볼 수 없는 것 역시 이러한 의지의 표명이다.

크링은 대지 면적 4110.9m<sup>2</sup>, 연면적 7144.53m<sup>2</sup> 규모로 지상 3층과 옥상 공간(건물 높이 37.38m)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1층의 아트리움은 우아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는 순백의 타일로 꾸며져 있다. 이 공간에는 주로 신진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설치 미술과 조형물 등이 배치되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크링 시네마에서는 독립 영화와 예술 영화를 중심으로 한 비상업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크링 시네마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관람객이 지불한 입장료는 한국소아암협회 등에 기부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컨퍼런스룸은 20~30명 규모의 소규모 세미나, 워크숍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대관 심사를 통해 무료로 대관하고 있다.

2층에는 대한민국 바리스타 1호 안명규 씨가 운영하는 커피명가가 들어서 갓 볶은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빈티지 홀에서는 대규모 컨퍼런스 및 브랜드 론칭쇼, 패션쇼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건물의 옥상은 프라이빗 파티, 소규모 음악회, 부티크 웨딩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재해석됐다. 이른바 '스카이가 든' 의좌우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 이벤트 공간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반면 훤히 들여다보이는 하늘은 이색적인 감동을 가져다 준다. 중간 중간에 놓여 있는 구조물들은 옥상 정원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오른편에 펜스식 벤치를 마련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네덜란드 어로 원을 의미하는 크링의 명칭처럼 곳곳에 원을 컨셉트로 한 구조물들과 벽면 장식이 세련되고 통일된 느낌을 가져다 준다.

#### 리첸시아 중동,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담다

한편, 금호건설은 '리첸시아 중동'에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옷을 입혔다. 한글 캘리그래피(Calligraphy)로 유명한 이상봉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리첸시아 중동'의 거실 벽지와 현관문에 선보인 것. 그동안 타 건설사를 통해 유명 디자이너가 전체적인 디자인의 컨셉트를 제안한 사례는 있었으나 금호건설처럼 실제 인테리어 아이템에 디자이너의 손길이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리첸시아 중동은 매화나 대나무, 조약돌 같은 자연물을 소재로 삼아 벽지 디자인을 꾸밈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획일화된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적용되어온 현관문에서 벗어나 특화된 디자인을 입힌 현관문을 통해 입주자들이 들어설 때부터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의 느낌을 전해준다.

금호건설과 이상봉 디자이너의 전격적 만남은 그동안 차별화되지 않았던 주거 공간에서 각 세대의 환경과 특성, 그리고 입주자들의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이 가능하도록 주거 공간을 특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은 리첸시아 중동을 디자인하면서 세대의 특성 및 개인 취향에 가장 크게 신경 썼다고 밝혔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그동안 휴대폰이나 각종 생활 필수품에 디자인이 적용

된 데카르트 사례가 주택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된 것은 라이프스타일의 총 집결지가주택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때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주택과 디자이너의 만남을 이뤄낸 금호건설 이연구 사장은 “금호건설은 계 속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며 주거 공간을 단순히 가주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입주자가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아웃과 어울림’ ‘자연과 어울림’ ‘첨단 생활과 어울림’

금호건설의 어울림 브랜드는 ‘아웃과 어울림, 자연과 어울림, 첨단 생활과 어울림’ 이란 3가지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 어울림 심벌은 미국 추상 조각가 이자 움직이는 미술, 키네틱 아트(Kinetic Art)의 선구자인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 1898~1976)의 모빌 작품 ‘Grand Crinkly’에서 착안했다.

어울림 BI는 인간·자연·첨단 생활들이 서로 조화된 어울림의 세상, Network를 의미하는 이미지로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아파트, 그리고 조화미·균형미를 표현하며 고급스러움과 형태의 차별성이 높은 그래픽을 표현한다. 금호건설의 ‘어울림’은 영문으로 지어진 아파트 브랜드가 난무하는 시장에서 고유의 한글을 사용해 좋은 평을 얻고 있다.

금호건설은 ‘여자가 보인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30~40대 주부층을 타깃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아파트 설계에 있어서 주부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어울림 아파트는 그 동안 대면형 주방, 높낮이 조절형 식기 건조대, ‘ㄷ’ 자형 Walk-in Closet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부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을 자속적으로 개발·적용하고 있다. 리첸시아 용산, 용인 동백 금호어울림 타운하우스에 세제가 필요 없는 무세제 새 정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을 적용해 가족들의 생활 편의와 보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 사람·지식·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평택 장안동 북시티(BookCity)’

금호건설(대표이사 사장 이연구)이 2009년 6월,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483번지에 어울림 아파트를 분양한다. 평택 장안동 아파트 단지는 금호건

설의 ‘어울림’과 코오롱건설의 ‘하늘채’가 함께 시공을 맡은 프로젝트로 11만 3074.00m<sup>2</sup>의 대지 면적에 지상 15~22층, 25개 동 총 23만 6769.11m<sup>2</sup>의 연면적 규모로 건립된다.

84.87m<sup>2</sup>(25평형) 242세대, 84.65m<sup>2</sup>(25평형) 144세대, 84.94m<sup>2</sup>(25평형) 114세대, 111.21m<sup>2</sup>(33평형) 135세대, 111.86m<sup>2</sup>(33평형) 99세대, 120.20m<sup>2</sup>(36평형) 34세대, 121.06m<sup>2</sup>(36평형) 108세대, 163.12m<sup>2</sup>(49평형) 31세대 등 총 907세대 규모이며, 6월 중 분양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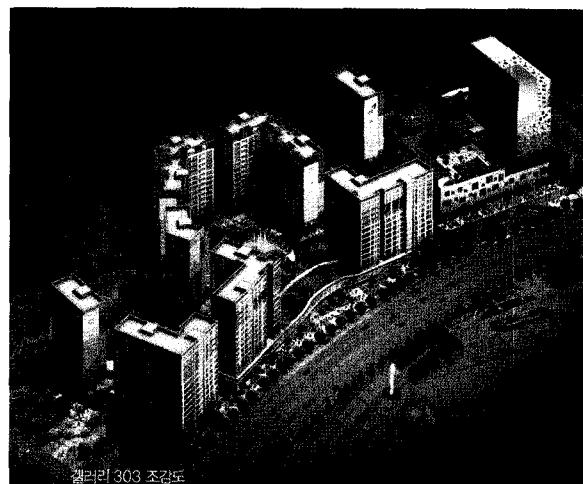
분양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평택시에는 정부 주도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2004년 12월 31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평택시 도곡, 서정, 장당, 지제동 및 고덕면 일원에는 ‘평택국제화지구’가 들어선다. 약 528만 평의 부지에 주택과 산업 단지가 함께 들어설 평택국제화지구는 다가오는 환경 해권 경제 시대에 대비해 평택시를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2009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양 예정 지역인 장안동과 도일동 일원에는 ‘브레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약 150만 평 규모로 건립될 이 지역은 국제적인 문화·교육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와 평택시가 함께 추진 중인 개발 프로젝트다. 평택시는 이미 지난해 6월, 성균관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브레인시티 내 스포츠·교육 용지(40만 평)에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 입주를 약속받았다.

이러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서 국제화 지구가 들어서는 이충지구와 브레인시티 예정 지역인 장안동 일대는 도로 확장 및 개설에 따라도 심지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브레인시티 내 성균관대학 캠퍼스 유치는 지역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건설은 단지 내에 특화된 조경을 선보이고 녹지와 친수 공간을 확대할 방침으로 ‘친환경’과 ‘웰빙’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별 주거지 내에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인근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단지 아파트로 금호건설의 ‘어울림’과



코오롱건설의 '하늘채'는 입주자들의 만족도와 프라이드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타이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부대 시설도 선보일 계획이다.

### 광주 지역의 특급 호텔 금호건설 '갤러리 303'

2008년 3월 갤러리 303이 광주 지역에서 분양을 시작했다. 갤러리 303은 광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글로벌 라이프스타일의 비즈니스, 문화·예술이 반영된 신감성 미래주거 단지다. 특히 준공 전부터 아파트와 특급 호텔을 함께 갖춰 화제를 모았으며, 호텔과 아파트가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형태인 주호 복합 단지로서 주거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광주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국제 외교 주거 단지 조성의 첫걸음을 갤러리 303이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갤러리 303은 대지 면적 4만 1941m<sup>2</sup>(아파트 3만 328.00m<sup>2</sup>, 호텔 1만 1613.00m<sup>2</sup>), 지하 2층~지상 15층짜리 8개 동 규모 18개 타입, 364세대 중대형 아파트와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특급 호텔 1개 동으로 구성된다. 갤러리 303은 총 364세대를 영국, 프랑스, 뉴욕의 실용 감성을 새롭게 해석한 브리티시 하우스, 프렌치 매종, 뉴욕 로프트 3가지 타입으로 구성한다.

하층부에 위치하는 British Contemporary House(202.53m<sup>2</sup>)는 비즈니스 CEO를 위한 복층 조합 아파트로 단독 주택형 유닛이 강조됐다. 개인 정원을 앞에 둔 복층형 구조로 1층은 귀한 손님을 위한 칭조적 비즈니스 공간, 2층은 개인과 가정을 위한 가족 중심 공간으로 구성했다. A, B 2개 타입이 제공되며, 1층 A 타입은 사색과 연구, 비즈니스와 사교를 위한 공간이고, 2층 B 타입은 휴식과 가족 간 어울림의 공간으로 마련했다.

프랑스 디자이너들과 주부들의 주거 공간을 재해석한 French Contemporary Maison(178.78m<sup>2</sup>, 223.19m<sup>2</sup>)은 가족 간의 소통과 개방을 위한 가족 중심의 스타일리시 아파트먼트다.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해 유리벽 등 개방감을 고려한 실내 공간을 연출했고,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배려와 내부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점 등이 돋보인다.

마지막으로 New York Contemporary Loft(220.95m<sup>2</sup>) / Pent-house(338.73m<sup>2</sup>)는 전문가 부부의 바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주거와 작업 공간을 구분시킨 분리형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다. 일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각 기능별 동선을 짧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최고의 조망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뉴요커의 라이프스타일을 공간에도 입해 창조적 비즈니스가 가능한 스튜디오 생활 공간으로 설계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광주 최대의 업무 및 상업 복합 자구인 상무지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갤러리 303'은 광주 국제 공항과 5분 거리에 인접해 있으며, 제2 순환도로와 호남 고속도로가 가까워 비행기와 차량 접근성 등 우수한 교통 여건으로 국제 외교 주거 단지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입주는 2010년 3월 예정이다. ☺



금호 아시아나 그룹 본사 'Main Tower'